

# Issue Comment

- ✓ 방통위, 6월 분리공시제 도입 추진
- ✓ 분리공시제 도입 시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축소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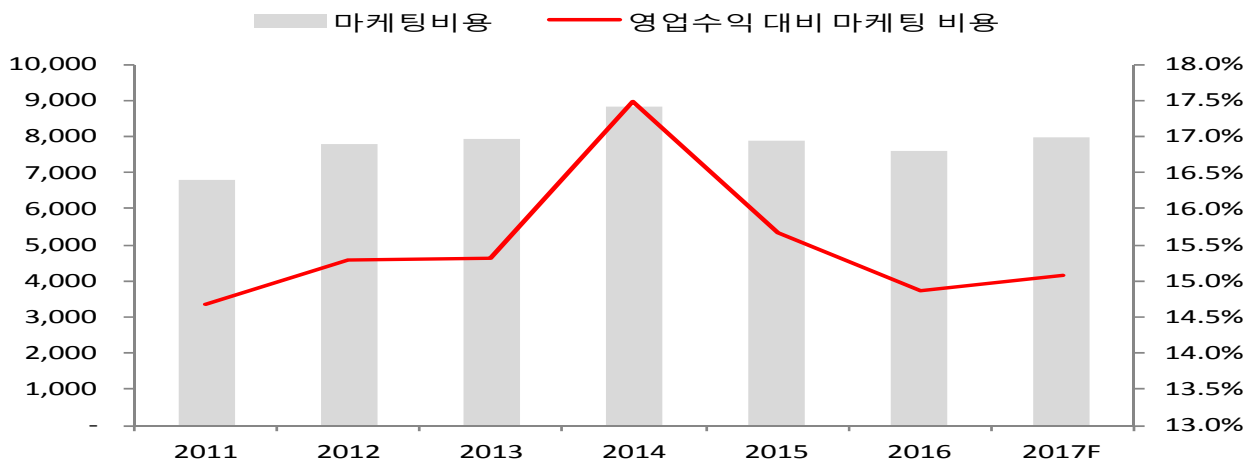
## 통신서비스: 단말기 분리공시 6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는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6월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또한 OECD 국가와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도 5월부터 시작할 예정. 현재 관련 법안 6개가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법안처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전망

단말기 분리공시제가 실시된다면 통신서비스 업체에 긍정적 요인이라 판단함. 그 이유는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제조사 간 보조금 경쟁 및 단말기 출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이는 통신사의 보조금 축소로 이어져 통신사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통신 3사 마케팅 비용 추이

(단위: 십억원)



### 자료 각 사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